

테마칼럼

공간과 일상

문화의 양기

디자인 세상

파라바 경영

디자인, 희망을 쏜다



이난경

어수선한 한해가 끝나가고 있다. 이맘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한해의 결산과 내년의 전망이다. 가장 암울했던 곳은 역시 정치 분야이다.

나 지위에 비해 '국가브랜드'의 경쟁력이 한참 떨어진다.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국가의 이미지를 전락적으로 홍보하고 여러 부처에서 발생하는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가 생긴다면 국가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에 반해 올해 디자인계는 많은 성과와 변화를 이뤄냈다. 그 중 디자인계의 화두는 단연 공공디자인이었다.

올해의 디자인계는 상복도 많았다. 그동안 종종 국제적인 디자인상을 받아왔던 대기업을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학생들도 세계적인 권위의 상을 받는 기업을 도왔다. 이는 국내에도 디자인 경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쾌거이며, 또한 창의성에 중점을 둔 교육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이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후 신설된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가 서울을 디자인으로 바꿔가자, 전국 지자체에 비슷한 기능의 디자인 부서 생겨났고,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도 우리가 사는 도시와 공간의 격(格)과 질(質)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그동안 발전 없이 쉽게 돈을 벌었던 관공, 납품을 하던 회사들도 이제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성과도 있었다.

문화적으로는 디자인이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된 해라 말하고 싶다.

또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디자인의 영역이 한층 넓어진 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서초동 한가람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디자인, 일상의 경이'전은 안전권, 포스트잇, 일회용라이터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로 디자인 가치를 발견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다. 사간동 금호미술관에서는 20세기 초 기능주의 미학을 발전시킨 독일 바우하우스가 가져온 주거문화의 혁신이 현대 디자인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선 디자인포럼을 만들어 공부가 한창이고, 국가디자인위원회를 만들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인 경제력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볼 차례이다. 먼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시대적 요구를 받

영한 디자인 관련 법·제도를 제정하고 각 부처의 디자인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디자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적 영역에 비해 낙후된 공공 영역의 디자인을 심미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구성원 간의 배려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과 교육 측면에선 여러 디자인 영역 간의 통합과 이종 분야와의 융합이 필요하다. 디자인 선진국에선 이미 디자인과 경영, 과학기술, 인문학 등 서로 다른 영역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적으로 디자인이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디자인박물관과 디자인 문화센터와 같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과제다.

그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경제도 어려울 것이라 한다. 서로 배려하고 함께 사는 해법을 디자인으로 찾아보자. 디자인이 희망이다.

<광주여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야 '대타협'으로 불황극복 실마리 풀어나가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결사저지 만 남은 것인가.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대화 시한으로 잡은 25일이 지났다. 여당은 연말까지 주요 법안 114개를 단독처리하겠다고 버리고 있고, 야당은 국회의장실과 상임위 회의실을 접거한 채 결사항전 태세다.

다. 조금씩 양보해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면 현안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의 한치 양보 없는 대결은 코앞도 볼 수 없는 경제위기에 처한 국민을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다. '민의를 전담'에서 또 다시 '야만적인' 폭력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망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불황극복의 실마리를 풀라는 것이다.

이양당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순수입생반, 내년 예산과 관련한 세출법안, 위험 및 헌법 불합치 해소법안 등은 이유없이 합의처리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옳다. 강경투쟁 이후 당 지지도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오판해서 안 된다. 민생 해법을 내놓았을 때 진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재집권의 길도 열린다.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먼저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한나라당은 야당의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데 대해 무조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다음은 한발씩 뒤로 물러서는 것이

계획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신 빈곤층' 구제

정부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복지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저소득층의 료보장 확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이 그것이다. 실물경기 악화로 서민층과 중산층의 연세 붕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비상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첫째가 재원마련이다. 재원 대책도 없이 발표한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50% 국가지원, 위기가구 긴급지원 같은 프로젝트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부터 빨리 확보하기 바란다.

그동안 사후 처방에 머물던 복지행정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 기대가 크다. 구직기간이 길어질 상황에 대비해 실질적 지원기간을 늘린 것부터 시작되려 한다. 그린스타트 기술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2007년: 2.4%→2030년: 11%)하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2007년: 1.8%→2030년: 7%)하고,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분야 22개 사업을

정부가 지자체에 무작정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압박하지 말라는 아니다. 국비지원 비율을 늘리고, 적절한 인원을 보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에 예정된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선 순위를 다시 따져 집행하는 작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때그때 진행상황을 점검하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빚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대책은 임시 해결책이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답이다. 고용안정에 실패하면 급증하는 취약계층이 사회불안 세력으로 둔갑해 우리 사회 전체를 벼랑으로 몰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도 차분하게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복지대책은 꼼꼼할수록,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이상영.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저물어가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답게 간간히 눈과 한파가 닥치면서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학업을 잠시 쉬는 기간이라는 방학이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무색하게 요즘 아이들은 보충 수업이다, 학원이다 하면서 오히려 더 학업에 사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방학기간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때도 있다. 바로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 놓는 일이다. 소아·청소년들은 봄부터 여름에 이르는 기간에 키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

기고 김정호. 2008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환경의 화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닌 가실다. 저탄소(Low Carbon)란 말 그대로 탄소가 낮다는 뜻이다. 탄소(C)는 공기 중의 산소(O)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CO2)가 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탄소가 함유된 석유나 석탄을 태워 난방을 하고 전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굴린다. 에너지는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처럼 무한정에서 자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젠

겨울방학은 아이 '성장' 뿌리 내리는 시기. 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나무가 시기를 때려 잘 자라는 만무할 것이다. 겨울은 매우 음(陰)적인 계절이지만, 그 속엔 양(陽)의 기운을 품고 있는 때이다. 잘 자라기 위한 잠재력을 모아 저장하는 시기가 바로 겨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적으로 성장 치료에 사용하는 한약 처방은 대개 성장에 필요한 근본적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을 위주로 한다. 뿌리 깊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 뿐더러 잘 자라게 마련이다. 올 겨울 방학에는 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만 내몰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좀 더 뛰어놀 수 있게 해야 하고, 성장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속속 자랄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자. <청연한의원 원장>

올 환경 화두 '저탄소 녹색성장'을 환경 화두 '저탄소 녹색성장'가 바닷가 나는 한정된 자원이기도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이기에 그렇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표면에서 생긴 열이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구 상공을 마치 랩(Wrap)처럼 덮고 있어 가름, 홍수 등 각종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이 같은 기후변화를 국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약속이 기후변화협약으로 지난 1994년에 발효되어 190여개국에서 가입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저탄소경제체제로 돌입했다. 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 사용량의 80%를 감축하고 EU와 일본도 60~80%를 감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환경·경제 효율성(Eco-efficiency)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 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신성장 패러다임이다. <영산강 환경감시단장>

악용되는 농지은행 수탁사업...철저 조사를. 쌀 직불금 파문으로 농민들의 분노가 아직도 거세다. 그런데, 직불금 말고도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사업도 양도세 감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것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농지은행제도는 이농을 원하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가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농업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해줬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지은행 수탁사업은 부채지주들이 부채 목적으로 농지를 사서 이를 팔거나, 나중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데 활용하고 있다. 부채지주들의 투기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은행에 맡겨 8년 이상 위탁하면 법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가 60%로 종가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들

한심한 중앙부처 인사업무. 얼마전 회사에서 부장이 날보고 직장을 옮길까냐고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정말 이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부장은 며칠 전 입찰계약 업무 때문에 정부 부처 중앙부처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한다. 정부 공공입찰이 사이트에 게시되기 때문이었다. 검색을 하다 우연히 공직사항에서 ○분야 전문 경력직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그곳에 내 이름이 있더라는 것이다. 해프닝으로 끝나 웃고 말았지만, 이것이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나는 무척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것이다. 서류전형 합격만으로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한다는게 소문이 날테고, 만약 그 상황에서 최종 합격이 안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인가. 다른 곳도 아닌 정부 중앙부처에서 인사 업무를 이처럼 허술하게 한다니 한심스럽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노출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가. 수험번호와 성(姓)만 기재해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각종 행정문서에서 주민번호 앞부분만 기록해 발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無等鼓.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던 지난 23일,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 중국인들이 '국보급 동물'로 여기는 판다 두 마리를 대륙에서 보내준 것이다. 수컷 '합환(團團)'과 암컷 '위안위안(圓圓)' 등 두 마리가 길을 떠나기 전에는 대대적인 환송식이 열렸다. 23일 판다의 고향 쓰촨(四川)성 야안(雅安)에서 진행된 행사에 중국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은 기자를 현지로 보내 정식 뉴스도 거론 채 생중계했다. 이처럼 성대한 의식이 치러진 것은 판다들이 '평화의 메신저'였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판다 선물은 지난 2005년 5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국공(國共)회담' 당시 렌잔(連戰)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에게 갖태어난 판다 암 수 한 쌍을 기증했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했다. 당시 후진타오 주석의 제위에 대만은 중국의 대만 통합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올해 대만 독립을 주장했던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이 물러나고 본토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선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정부로 바뀌면서 환관과 위안위안의 대만 여행이 이뤄졌다. 판다 운송을 맡은 대만 항공사는 모든 좌석에 판다 무늬가 새겨진 덮개를 설치하고 대형 판다 인형 2개를 만들어 앞좌석에 앉혔다. 두 마리의 판다는 크리스마스에 양안 국민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이념이 달라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중국과 대만에 해빙무드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실리'를 위해서다. 양측은 최근 '3통'(通商·通航·通郵)으로 더욱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3통'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꾀하고 있는 터에 두 마리의 판다는 양안 협력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다. 세계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이념을 버리고 서로 손을 잡는 중국인들의 해안이 돋보인다. /박지경 체육·여론대처부장 uni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정)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